

해남군, 귀농·귀촌 1번지 급부상...인구 유입 확대 속도

6년간 8331가구 9444명 달해 체계적 정착 지원 정책 효과

전라남도 해남군 귀농귀촌 인구가 6년간 8331가구, 9444명에 달하는 등 인구 유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2019년 귀농·귀촌 유치를 본격화 한 이래 현재까지 6년간 귀농인 847가구 1014명, 귀촌인 7446가구 8468명의 인원이 해남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으로 이주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고 귀촌인은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

다. 해남군은 지난해 귀농인 유입이 총 123명으로 전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숫자로 해남이 귀농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과 친환경인증 면적을 보유하고 다양한 특화작목 등 농업기술이 잘 보급되어 귀농인들이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기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체계적인 귀농 정착 지원 정책과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해남군은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부터 실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의 초기 상담과 더불어 농지 확보, 주택 수리·임대 지원, 귀농 창업자금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져 정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비 지원, 영농 창업 상품권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전국의 귀농 희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종자 구입비부터 단계별 포장박스 제작, 홈페이지 구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정착에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초보 귀농인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적응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남군은 청년 귀농인 유입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정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귀농·귀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은 단순히 귀농을 위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어선 선저폐수 무단배출 강력 단속 목표해경, 내달 1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에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1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목포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계도 활동 등을 벌이고 있음에도 목포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목포 남항에서 9.77톤급 어선에 잠수펌프를 설치해 선저폐수를 불법배출하다 적발된 사건을 비롯해 7일에도 46톤급 어획물운반선의 유압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141건으로 올해도 6월 말 기준 70건이 접수됐으며 해경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얽은 무지개 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띄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소량의 오염행위 일지라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불법배출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잠수펌프를 동원한 선저폐수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배출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목포어울림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어울림도서관은 7월부터 8월까지 4주간 주·야간으로 나누어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야간 강좌로 플로리스트 취미반,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만든 세상! 건축 교실, 알록달록 민화 교실, 알콩달콩 동화구연, K-POP 방송 댄스, 그림책과 떠나는 세계여행, 흙 놀이 도예 체험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10일부터 21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http://www.mokpolib.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9급·지도사 직렬 등 23명

전라남도 완도군은 ‘2025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공무원 2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직급은 9급 및 지도사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사회복지 2명, 농업 2명, 해양수산 2명, 보건 2명, 식품위생 1명, 시설(일반 토목) 5명, 시설(건축) 2명, 방재 안전 2명 운전 3명, 농촌지도사 2명이다.

군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를 통해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및 공직자로서의 의식과 친절도 등을 사전 파악하여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8월2일 필기시험 후 8월 8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 7일 진도군청 직원들이 조금시장 일원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전라남도 진도군이 지난 7일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오일장이 열리는 조금시장 일원에서 진행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참여해 추진했으며 지역

주민과 시장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을 홍보했다.

군은 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

용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을 알렸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여름철은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군, 코아루 블루핀아파트 내 육아카페 문 열어

양육 가정 돌봄 부담 완화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5일 군동면 코아루블루핀아파트 단지 내에 영·유아를 위한 전용 공간 ‘육아카페’ 문을 열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육아카페 조성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놀고 보호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육아카페 조성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진군이 지향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도시’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코아루아파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 85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아이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요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유휴공간인 옛 도서관을 리모델



지난 5일 강진군이 군동면 코아루블루핀아파트 단지 내에 ‘육아카페’를 개소했다.

강진군 제공

링해 육아카페를 만들었다.

군은 리모델링 비용과 함께 5년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지원하고 육아카페 운영관리는 코아루 자체운영위원회가 맡는다.

강진원 강진군은 “코아루아파트 육아카페는 단순한 놀이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소중한 공간이고 아동과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거점이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전 직원 탄소중립 교육 기초이론·실천 방안 등

전라남도 신안군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모 평민각종과학관장을 초청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 및 기초 이론부터 기후 대응 실천 방안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했다.

이정모 관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의 과학적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동향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등에 대해 명쾌하게 전달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문제다”며 “행정의 결단, 공직자의 실천, 의회의 협력, 지역사회 연대가 함께 어우러져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어선의 친환경 어선 전환 지원, 친환경 자동차 및 버스 보급·전환 등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